

2023년 8월

국내외 채권전망

2023. 8

Executive Summary

01 미국 채권

- 8월에는 추가로 확인될 호조는 많지 않을 것
- 8월 한달 10년 금리 기준 3.7~4.1% 근처에서 등락 예상. 현재 수준에서 중장기물 비중 확대 전략 유지

02 미국 크레딧

- HY 펀더멘탈에 비해 너무 스프레드 상대적으로 낮은듯
- 반면 IG의 경우 국채 금리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캐리 관련 수요 추가 유입이 가능해 OW 유지

03 신흥국 채권

- 한박자 빠른 인하 사이클과 선진국 기준금리 종료 임박한 점 등 우호적 요인 지속. 신흥국 OW 유지

결론: 달러표시 신흥채 > 미국 IG = 미국 국채 = 한국 국공채 > 미국 HY

Executive Summary

04 한국 국공채

- 심리 지표는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지표 반등은 미미함
- 3분기 금리 상승 시 마다 중장기물 중심 비중 확대 유지

05 한국 크레딧

- 최근 국내/외 국채 금리의 변동성 불구 탄탄한 캐리 수요 기반은 스프레드 하방 경직성 지지 요인
- N' 유지, 수급 차별화 속 신용 스프레드는 섹터별 혼조세

글로벌 채권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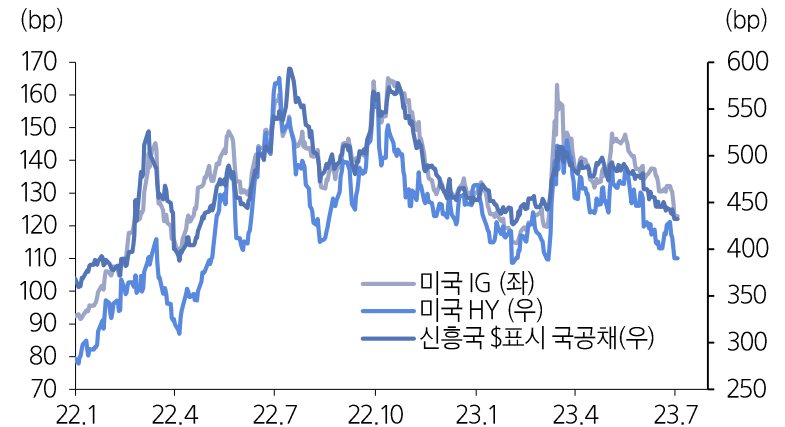
			글로벌 종합	선진국 정부채	글로벌 투자등급	글로벌 하이일드	미국 정부채	유로존 정부채	미국 투자등급	미국 하이일드	유럽 투자등급	유럽 하이일드	신용시장 정부채(\$)	신용시장 정부채(LC, Hedged USD)	신용시장 정부채(LC, Unhedged USD)	한국 국공채
Performance	1M	%	0.78	0.89	0.77	1.53	(0.34)	(0.16)	0.34	1.17	1.05	1.12	1.91	0.58	2.61	0.17
	3M	%	(1.20)	(1.63)	(0.35)	2.09	(2.21)	(0.01)	(0.70)	1.92	0.78	2.34	3.59	2.35	4.06	(1.31)
	YTD	%	2.22	1.47	4.32	7.02	1.24	2.36	3.56	6.61	3.26	5.61	6.08	4.95	11.10	2.79
	1Y	%	(2.62)	(3.50)	0.04	6.61	(3.93)	(8.66)	(1.30)	4.19	(3.35)	4.96	6.37	6.22	16.94	(0.23)
	3Y	%	(16.17)	(19.72)	(12.99)	2.15	(14.73)	(17.94)	(12.52)	6.02	(9.51)	3.52	(10.61)	(8.12)	(10.63)	(9.50)
Spread	현재	bp	40.6	12.5	126.4	413.7	-	-	111.7	367.7	146.6	421.4	397.8	-	-	-
	1M	bp	(3.7)	(0.7)	(11.6)	(17.3)	-	-	(10.2)	(24.2)	(15.6)	(19.6)	(34.6)	-	-	-
	3M	bp	(5.6)	(1.7)	(21.7)	(73.4)	-	-	(23.8)	(79.4)	(15.5)	(60.9)	(85.2)	-	-	-
	YTD	bp	(5.1)	(1.7)	(20.4)	(195.8)	-	-	(18.1)	(100.3)	(20.3)	(68.9)	(54.7)	-	-	-
	1Y	bp	(4.3)	(4.4)	(34.1)	(119.1)	-	-	(31.2)	(97.5)	(39.9)	(156.2)	(135.1)	-	-	-
	3Y	bp	5.7	(1.9)	(10.5)	(95.2)	-	-	(19.9)	(119.6)	18.9	(59.1)	(42.2)	-	-	-
YTW	현재	%	3.85	3.20	5.19	8.51	4.46	3.18	5.49	8.37	4.19	7.48	8.13	-	6.29	3.74
	1M	bp	0.6	3.7	(8.4)	(13.5)	7.3	(0.3)	1.1	(13.0)	(19.5)	(20.4)	(23.5)	-	(3.0)	(0.1)
	3M	bp	32.2	34.9	30.5	(12.3)	65.5	16.4	39.1	(10.8)	9.2	(29.0)	(33.1)	-	(24.2)	30.8
	YTD	bp	11.3	15.7	1.3	(48.0)	26.9	2.5	6.5	(58.3)	(7.9)	(33.6)	(42.4)	-	(56.5)	(15.3)
	1Y	bp	124.4	121.6	130.7	64.4	156.7	186.9	116.3	64.8	182.0	94.1	(6.3)	-	(54.6)	54.0
	3Y	bp	303.0	279.2	362.5	317.1	404.6	322.1	362.7	300.4	358.5	320.9	307.4	-	194.0	261.6
Duration	현재	년	6.83	7.53	6.30	3.82	6.18	7.43	7.34	4.03	4.64	3.25	6.81	-	5.03	7.15

글로벌 채권 Review 금리 보험, 스프레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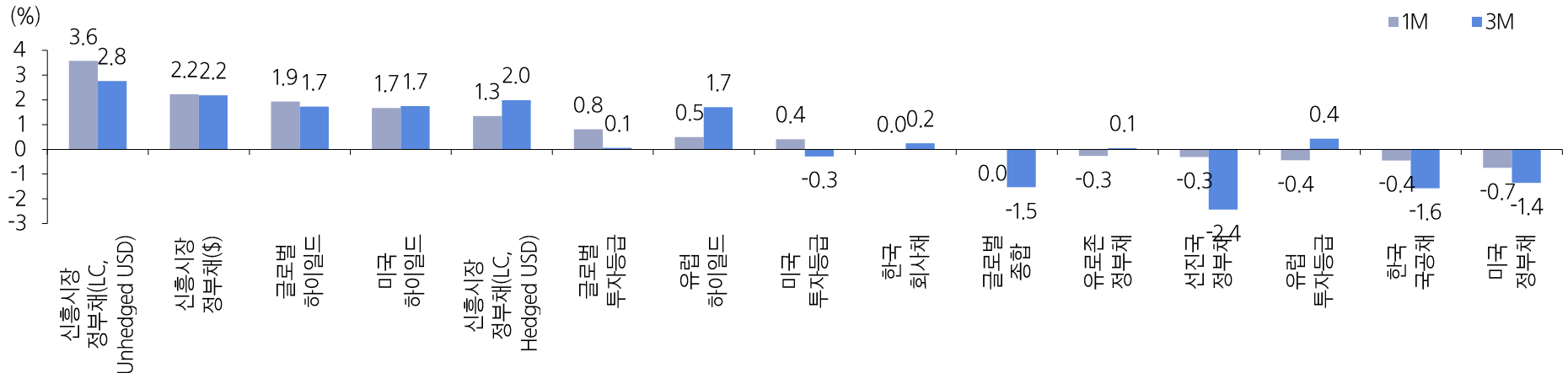
고위험 채권자산 중심 높은 수익률

- 글로벌 Risk on 지속되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하이일드를 중심으로 축소
- 신흥국 정부채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와 달러화 약세까지 더해져 로컬통화표시는 3.6% 수익, 달러표시는 1.9% 수익률 달성

주요 크레딧 스프레드



채권 자산군별 총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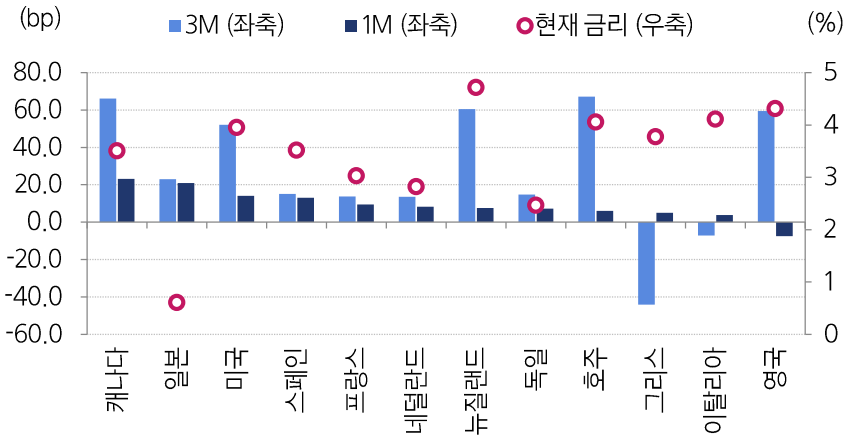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주: 신흥국 달러표시 정부채-JP morgan EMBIG Diversified Core, 신흥국 로컬통화표시 정부채- JP morgan GBI-EM, 그 밖의 지수는 Bloomberg Barclays 기준

글로벌 채권 Review

신흥국 인하 사이클 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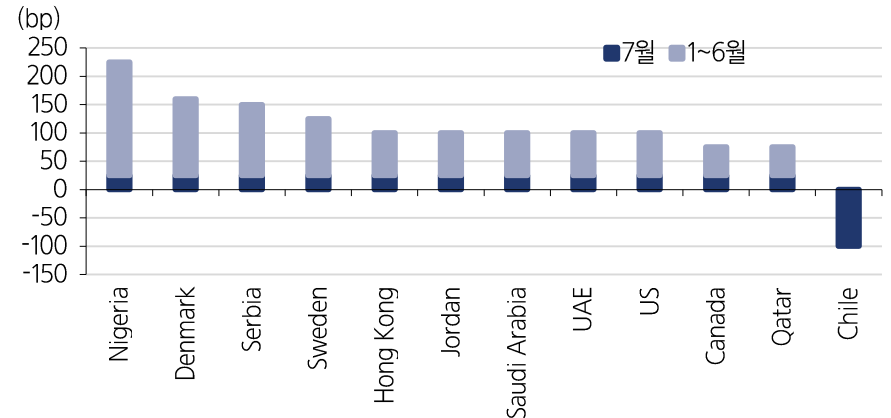
- 선진국 시장금리 대부분 상승 vs. 신흥국 엇갈린 흐름
- 7월 회의에서 ECB는 기준금리를 25bp씩 인상해 예금금리 3.75%, 재융자 금리 4.25%, 대출금리 4.50%로 결정. 9월 회의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 열어 두었으나, 서베이 지표 악화로 경기 하강 우려 커지며 금리 상승폭은 크지 않았음
- 신흥국에서는 칠레 기준금리 인하 단행, 브라질 인하 가능성 고조

선진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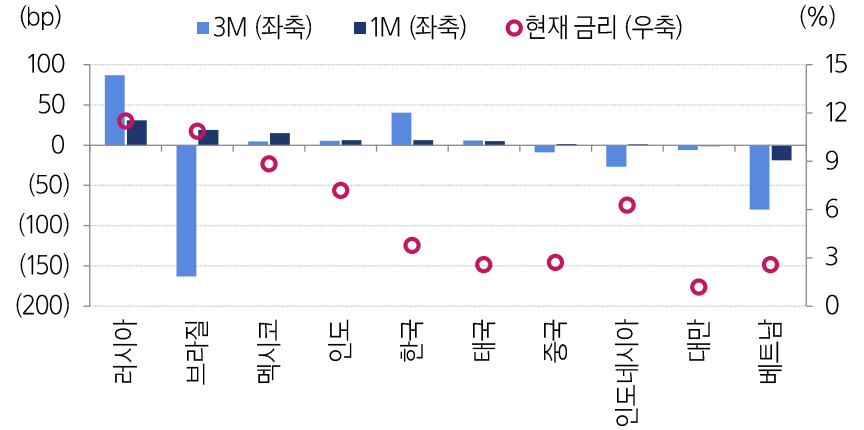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7월 중 주요 기준금리 인상 및 인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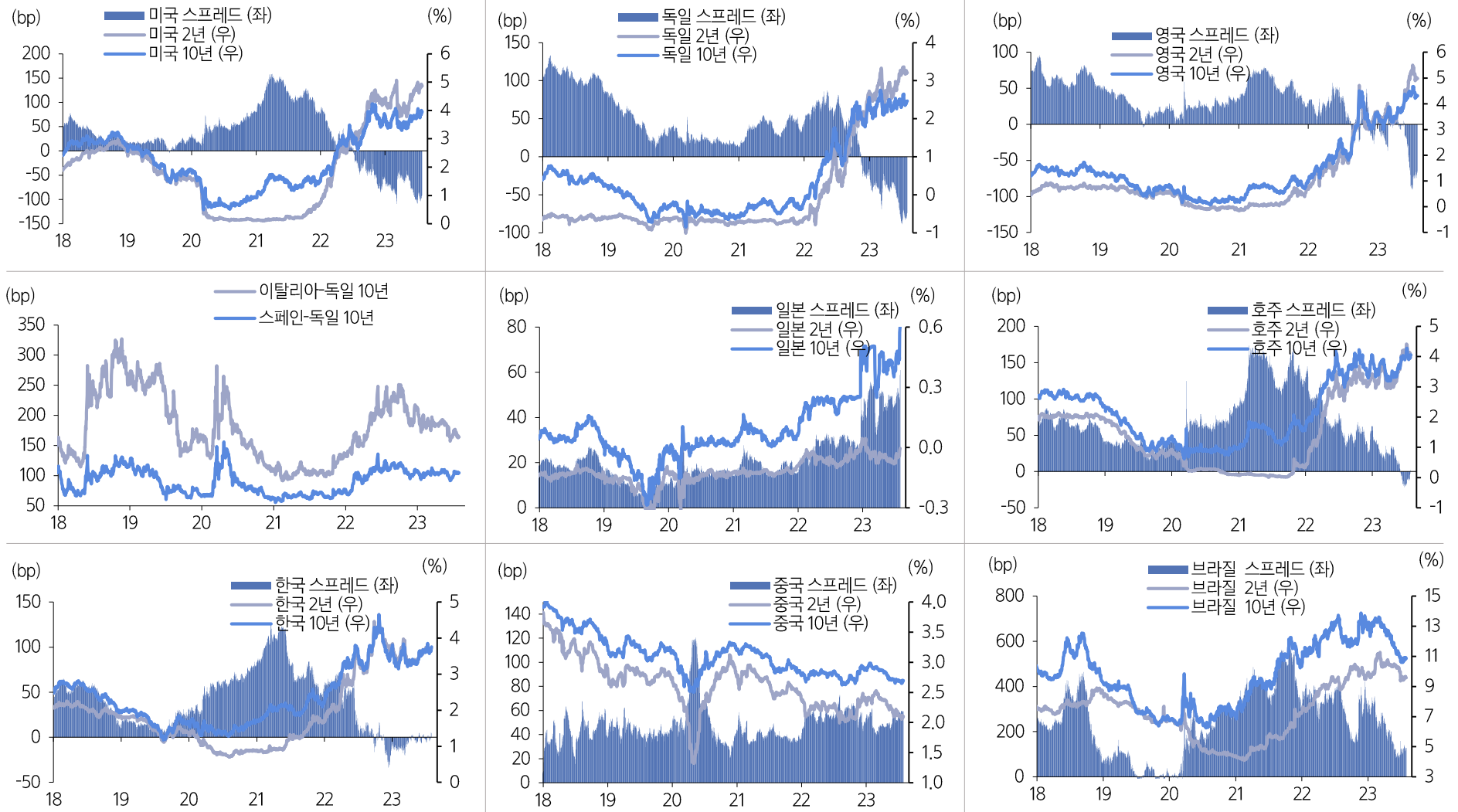


신흥국 국채 10년 금리 변동과 현재 금리



자료: Bloomberg

참고: 주요국 국채금리, 장단기 스프레드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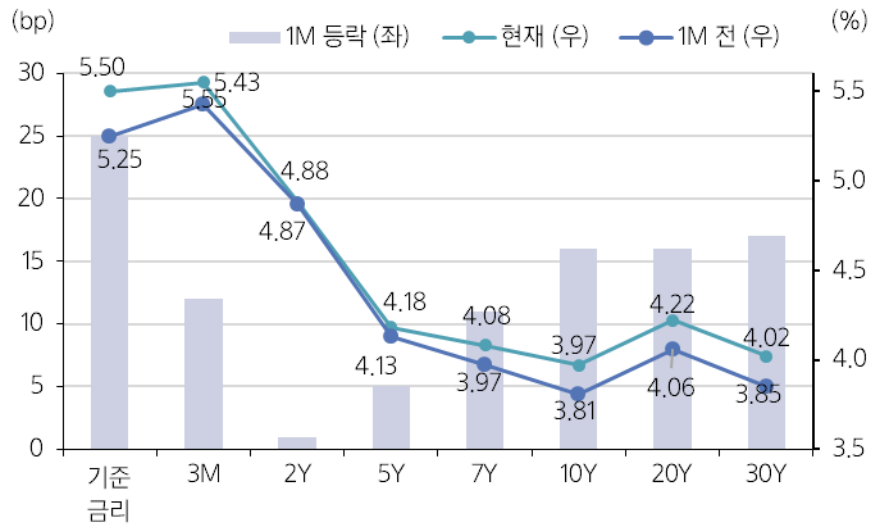
미국 국채

미국 금리 Review 전구간 금리 상승

기준금리 인상, 경기지표 호조, 일본 YCC 수정 등에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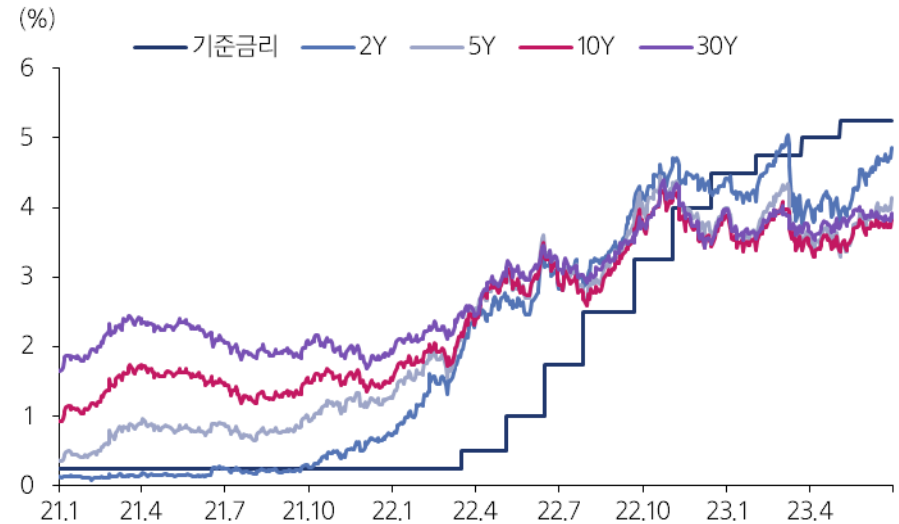
- ADP 민간 고용 지표, 2분기 GDP 등 경기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며 금리 4%대로 상승
-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 단행했으나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원론적인 내용 반복하며 큰 영향은 없었음
- 다만 CPI와 PCE등 물가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금리 상승폭 축소

전월대비 금리 소폭 상승



자료: Thomson Reuters

기준금리 밑에서 등락하는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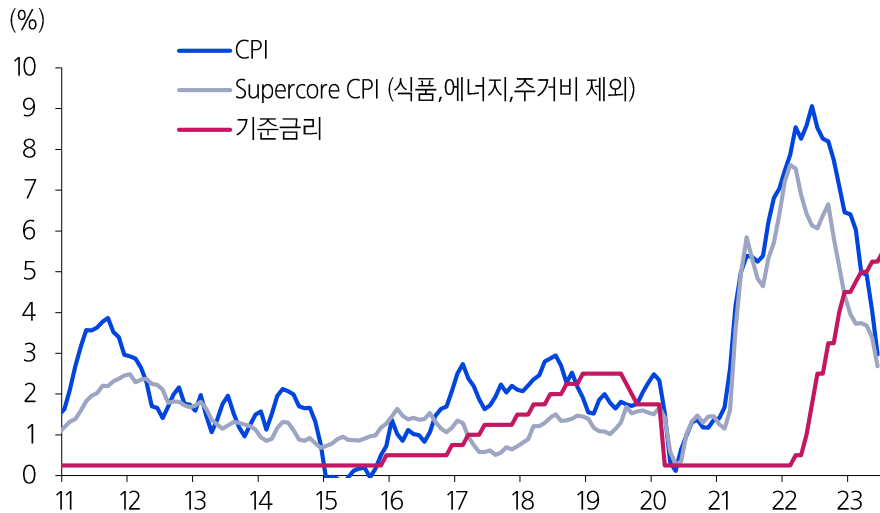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FOMC 사실상 마지막 인상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스탠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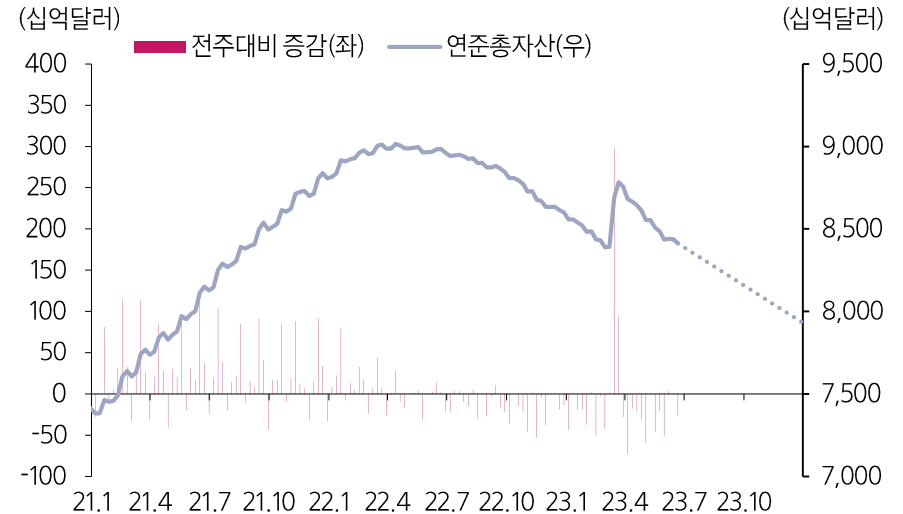
- FOMC는 예상과 같이 만장일치로 금리 5.25~5.50% 인상 및 QT 속도 유지
- 파월 의장은 9월 인상, 동결이 모두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 경기에 대한 판단 소폭 상향
-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 하락 확신된 이후 1년 후 정도가 적절하다고 밝힘
- 더불어 2025년까지 물가가 2%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2% 도달 전 인하할 것이라고 발언

물가 상승률을 넘어선 기준금리



자료: Thomson Reuters

연준 총자산은 연말께 21년 1분기 수준으로 돌아갈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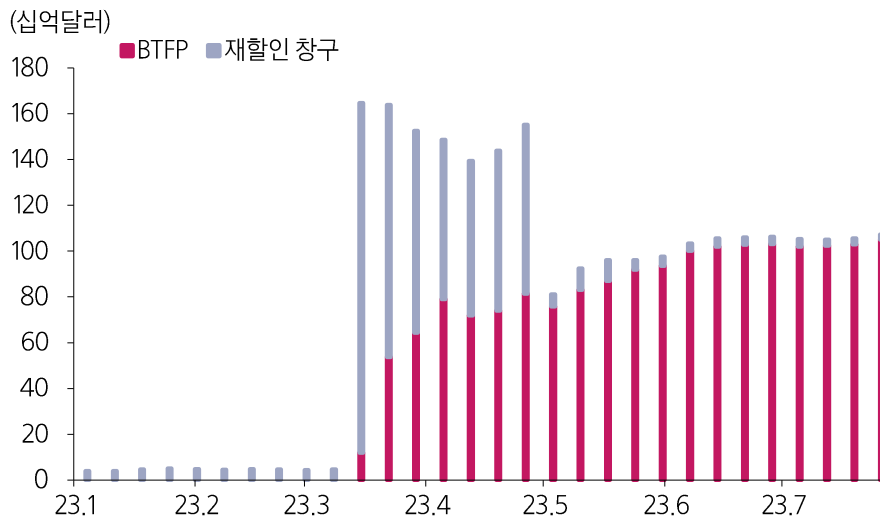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은행권 리스크 잔존 BTFP 잔액 지속 증가

연준 입장에서 추가 인상 어려운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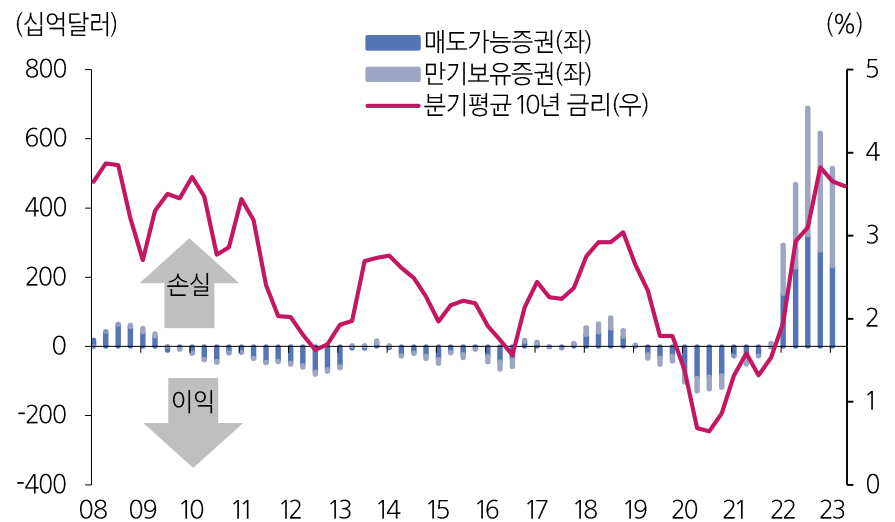
- 미국은행의 1분기 미실현 손실은 시장금리가 소폭 반락하면서 동시에 감소
- 다만 7월 중 10년 금리 재차 4% 터치하는 등 이자 부담 재차 높아졌을 것으로 판단. 2분기 미실현 손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증가했을 가능성
- 3월 시작된 BTFP 잔액 또한 7월에도 증가해 은행권의 유동성 니즈가 지속되고 있는 듯
- 은행권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상황에서, 물가가 크게 반등하지 않는 이상 연준 입장에서 추가로 기준금리 인상할 유인은 적음

7월에도 BTFP 잔액 소폭 증가



자료: Thomson Reuters

은행 1Q 미실현 손실은 금리 반락으로 감소했으나 2Q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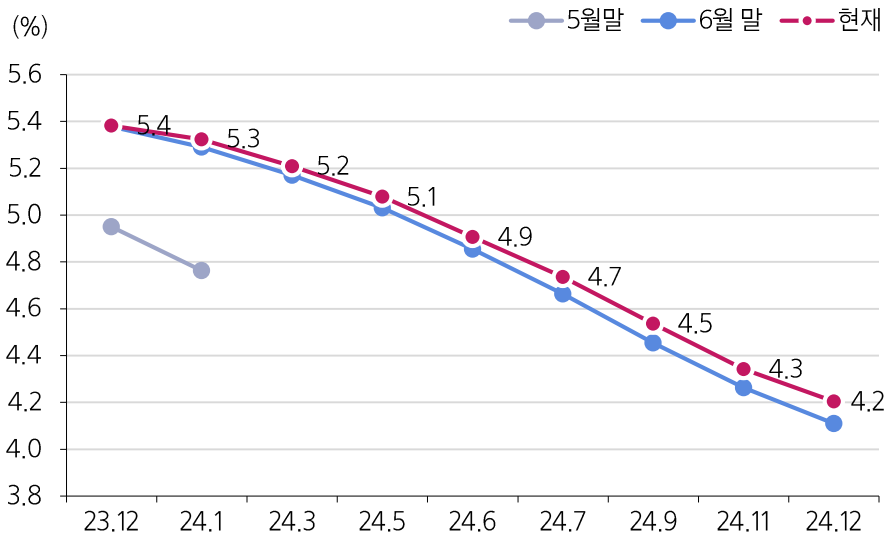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현재 수준 금리 동결 내년 하반기 인하 전망

10년 금리는 먼미래의 기준금리 인하 수준을 반영

- FOMC 이후 채권 금리 전구간별로 소폭 하락. 선도시장에 내재된 연말 예상 기준금리는 5.388%로 현재 수준에서 동결 전망 중
- 9월 FOMC 전까지 기준금리 인상을 야기할만한 강한 고용 호조와 물가 불안이 확인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
- 현재 수준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 이후, 내년 하반기 인하 전망 유지
- 현 기준금리를 대폭 하회 중인 10년 금리는 먼 미래(2년 뒤)의 인하기대를 반영 중이므로 과도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음

연방기금 선물금리에 내재된 향후 인하 기대



자료: Thomson Reuters

10년 금리는 2년뒤까지의 인하 기대를 반영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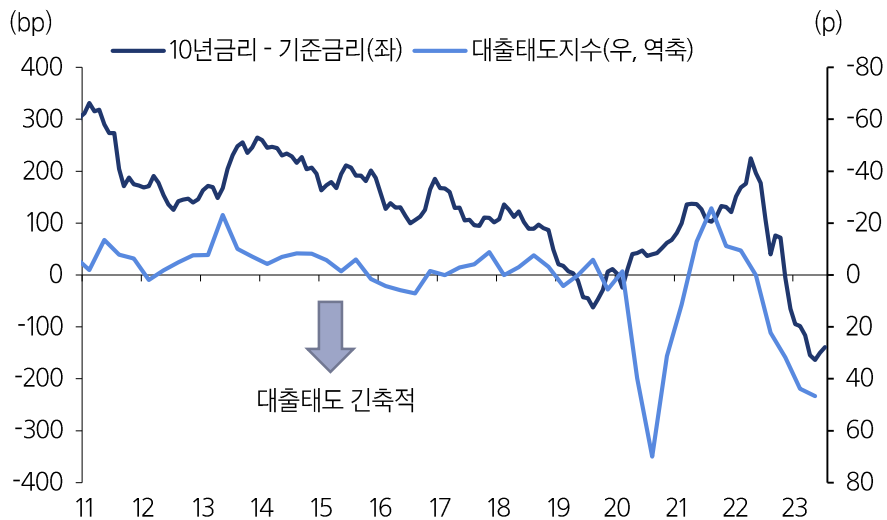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장기 금리 하락 요인 긴축적인 대출 태도 지속

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악화로 심리 지표 부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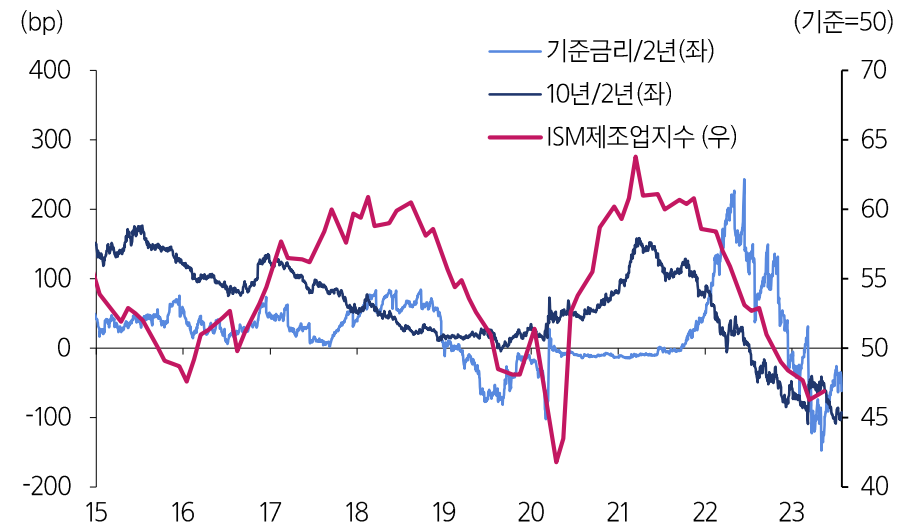
- 앞서 언급한 은행권 리스크가 미미하게나마 남아있는 이상, 은행권 대출태도는 긴축적인 성향을 이어갈듯
- 1분기 은행 대출 태도 또한 전분기 대비 추가로 긴축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조달 환경 더욱 부정적으로 변화
- 1분기 GDP가 확정치가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여전히 기업들의 심리 지표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음
- 시장금리는 실물 지표보다는 심리지표 흐름을 따라가는 경향

대출태도 지수와 장단기 금리차



자료: Thomson Reuters

2분기 대출태도 추가로 긴축



자료: Thomson Reuters

리스크 요인은 여전히 물가 8월 금리 보험권 등락

8월 금리는 박스권, 금리 상승시 마다 중장기물 비중확대 전략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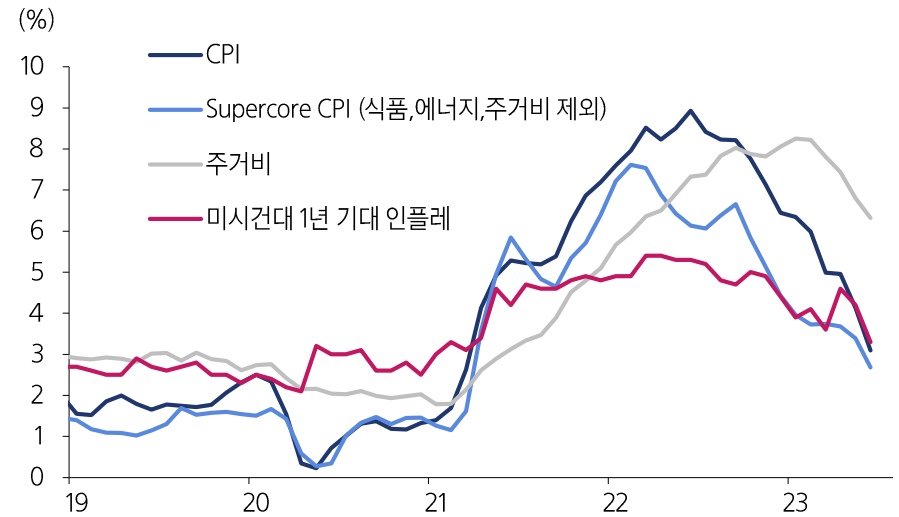
- 다만 상반기보다 느린 속도로 둔화될 물가는 여전히 금리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 리서치센터 베이스 시나리오 상 CPI 상승률은 연말 3.5%를 하회하면서 장기물 금리도 함께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할듯
- 지난 한두달 주거비 하락과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이 모두 확인돼 8월에는 추가로 확인될 호조는 많지 않을듯
- 8월 한달 10년 금리 기준 3.7~4.1% 근처에서 등락 예상. 현재 수준에서 비중 확대 전략 유지

장단기 금리 차



자료: Thomson Reuters

서베이상 물가 지표 소폭 반등 이후 재차 반락



자료: Thomson Reuters

02

크레딧과 신흥국

미국 크레딧 IG OW, HY 중립 유지

하이일드 스프레드 축소세 너무 빠르듯

- IG 스프레드 10bp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YTW는 전월 대비 보합. HY는 스프레드와 YTW 각각 24bp, 13bp 축소
- 최근 HY 스프레드 축소 빨랐으나, 글로벌 Risk on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의 결과. 5%대의 단기금리 이어지면서 펀더멘탈 리스크 불거질 가능성
- HY 일드에서 스프레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해 2007년 이후 최저. 펀더멘탈에 비해 너무 스프레드 상대적으로 낮은듯
- 반면 IG의 경우 국채 금리 완만한 하락이 나타나면서 캐리 관련 수요 추가 유입이 가능해 OW 유지

IG 스프레드와 YTW



자료: Bloomberg

HY 스프레드와 YT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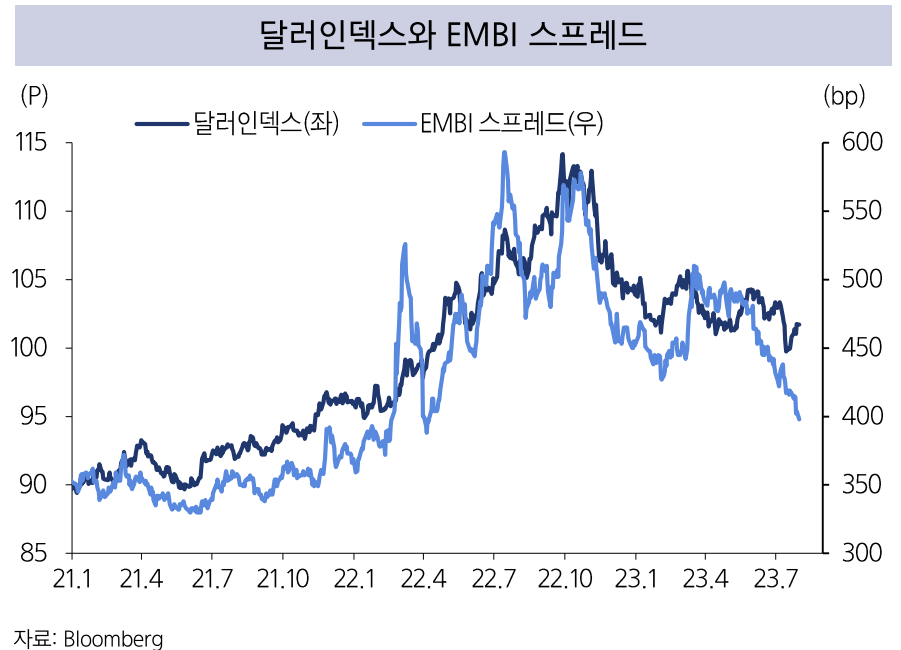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흥국 소폭 비중확대 유지

하반기 비중확대 유지

- 미국 기준금리 인상 사실상 종료된 가운데, 달러화 추가 약세 여지 남아있다고 생각. EMBI 스프레드 최근 약 달러에 연동돼 1년내 최저
- 남아공 중앙은행은 7월 동결 결정해 인상 사이클 사실상 종료. 칠레 100bp 인하와 더불어 8월 2일 브라질 인하도 기대
- 한박자 빠른 인하 사이클과 선진국 기준금리 종료 임박한 점 등 우호적 요인 지속. 신흥국 OW 유지

			종합	라틴	유럽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Performance	1M	%	1.58	1.28	3.19	0.68	0.37	3.74
	3M	%	3.25	2.81	4.76	(0.10)	1.96	10.54
	YTD	%	5.73	5.94	7.75	3.05	6.30	6.53
	1Y	%	6.02	5.38	11.74	1.71	2.53	14.23
Spread	현재	bp	404.5	379.0	457.0	300.0	267.0	772.0
	1M	bp	(27.8)	(22.0)	(60.0)	(15.0)	(8.0)	(71.0)
	3M	bp	(78.5)	(66.0)	(116.0)	(29.0)	(59.0)	(214.0)
	YTD	bp	(48.0)	(37.0)	(133.0)	(14.0)	(57.0)	(46.0)
	1Y	bp	(128.4)	(102.0)	(329.0)	(75.0)	(81.0)	(210.0)
YTW	현재	%	8.2	7.9	8.7	7.2	6.8	11.9
	1M	bp	(17.0)	(10.0)	(50.0)	(4.0)	3.0	(63.0)
	3M	bp	(10.0)	(6.0)	(11.0)	27.0	(12.0)	(95.0)
	YTD	bp	(9.0)	(10.0)	(60.0)	(24.0)	(38.0)	128.0
	1Y	bp	36.0	47.0	(72.0)	54.0	95.0	(41.0)
Duration	현재	년	6.8	7.9	5.3	6.1	6.5	5.1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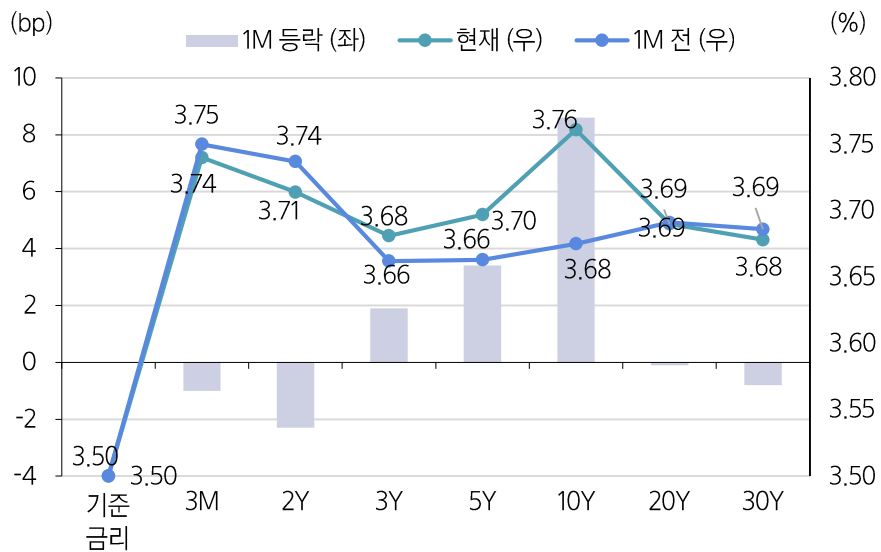
국내 국공채

국내 채권 Review

월후반 대외 요인에 따라 금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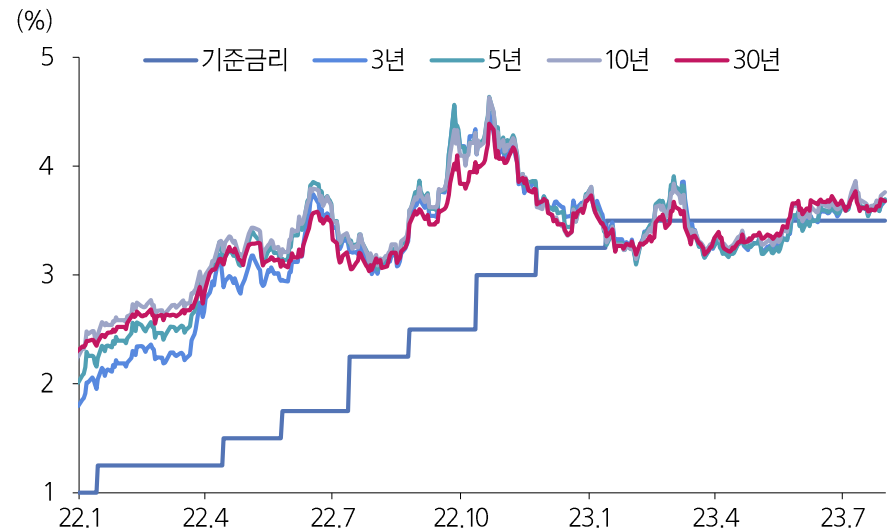
- 대외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10년 금리 변동폭은 낮은 수준에서 등락
- 7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 8월 동결 가능성을 시사.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은 상당히 견인 모습
- 다만 월 중순 이후로가면서 FOMC, ECB, BOJ 등 통화정책 조정에 따라 월 후반 상승

정상화 시도중인 수익률 곡선



자료: Infomax

기준금리 소폭 상회하는 시장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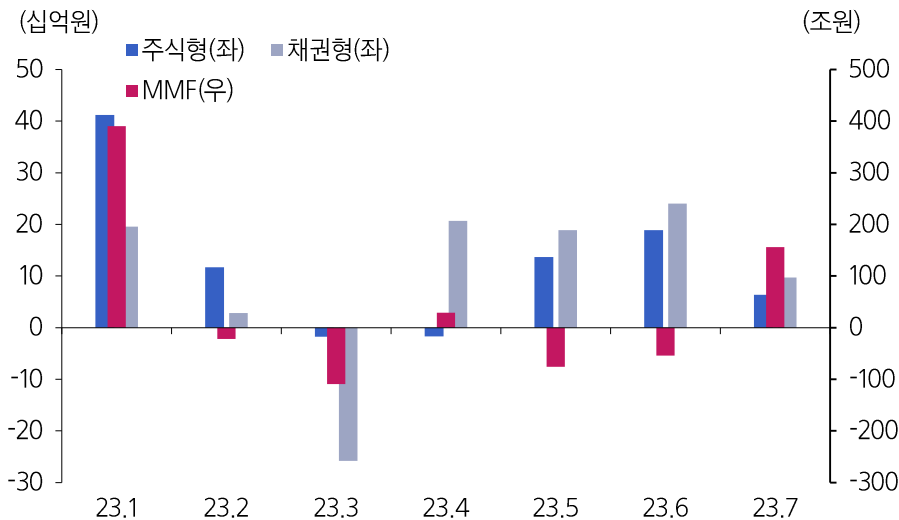
자료: Infomax

단기 자금 추이 요구불 예금과 단기 예금은 기타 투자처로 이동 중

아직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예비 수요 충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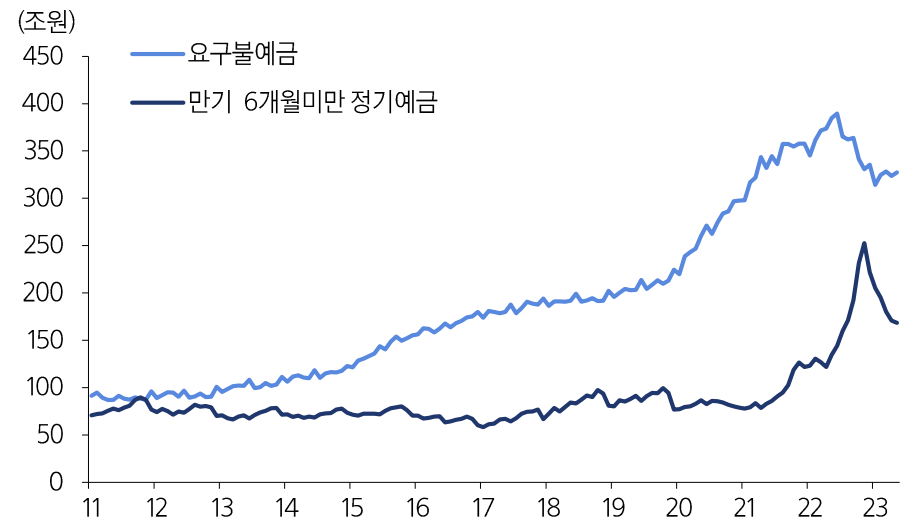
- 2월부터 지속적으로 유출되던 MMF 자금 7월들어 순유입으로 반전됐으나, 주식형과 채권형 펀드 유입 지속
- 한편 예금은행 수신액 중 투자 대기자금 성격의 요구불 예금과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 예금은 작년부터 감소 중
- 다만 여전히 추세를 충분히 상회해 아직 채권시장으로 유입될 예비 수요는 충분하다고 해석

펀드 유형별 월간 자금 유출입액



자료: Thomson Reuters

요구불 예금과 단타성 정기 예금 잔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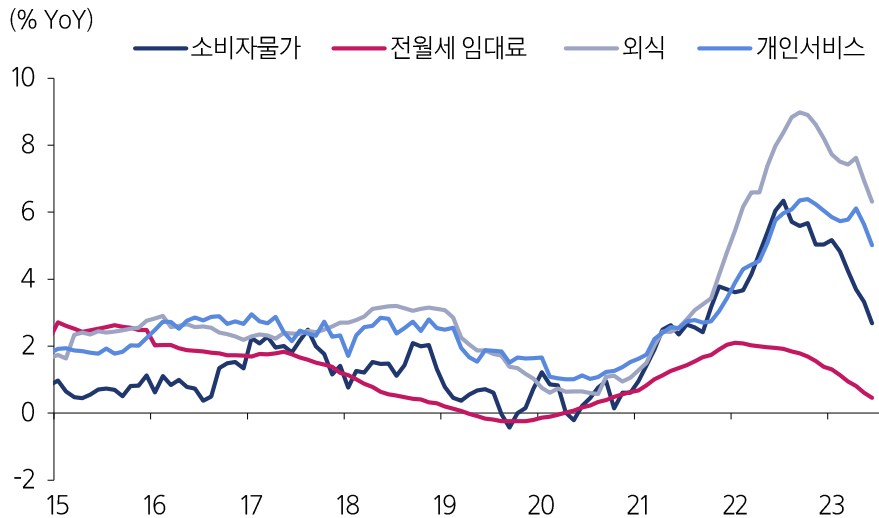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물가 명목 국채에 내재된 기대 인플레이션 꽤 높은 편

서비스 물가 하락 흐름도 이어지는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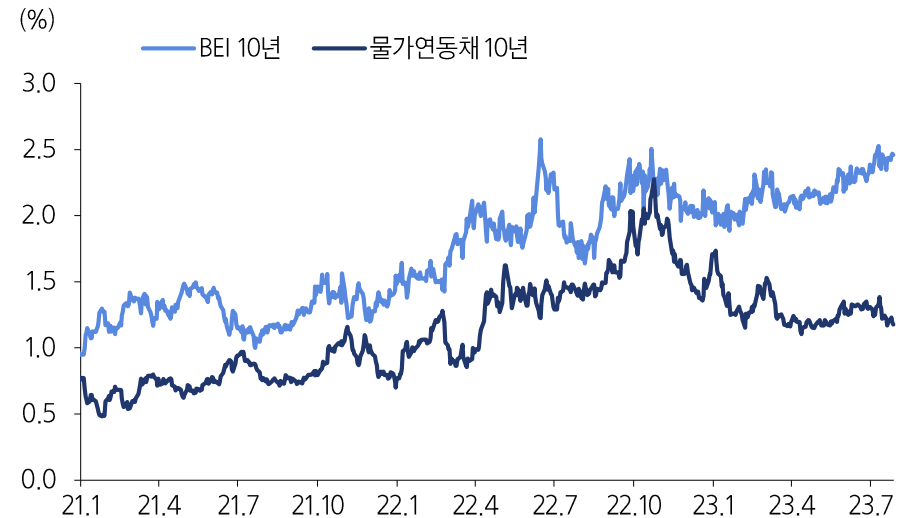
- 물가 둔화를 가로막았던 전월세 임대료 상승률은 마이너스(-) 반전 직전
- 서비스 물가 기여도 중 가장 높은 부분중 하나였던 외식물가 또한 4월 반등 이후 5~6월 큰폭으로 반락하며 우려 후퇴
- 반면 한국 10년 명목 국채를 실질 금리와 기대 인플레이션(BEI)로 분해해보면 BEI가 아직도 2.5%
- 이미 물가상승률이 2.7%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향후 10년에 대한 물가 기대가 2.5%인 것은 꽤나 높다고 판단됨. BEI 중심으로 명목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 잔존

작년부터 전기료 인상분



자료: Thomson Reuters

한국 BEI 10년은 2.46%으로 높은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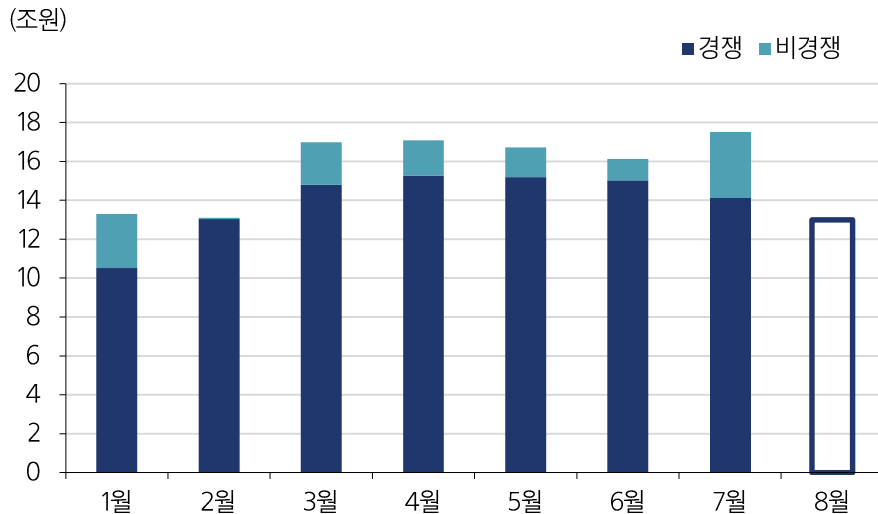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수급 상반기보다 타이트해질 수급

발행액 감소 & 외국인 수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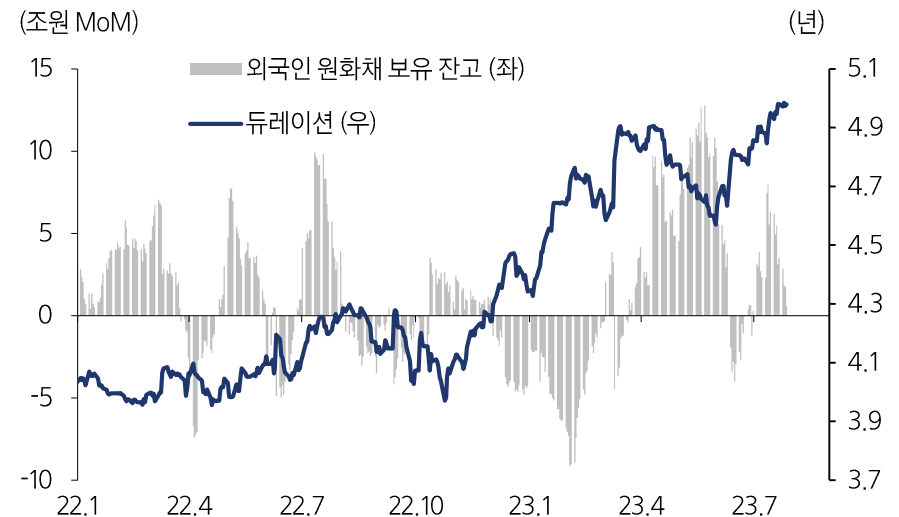
- 1~7월 월평균 경쟁 발행액 13.9조. 1~7월까지 이미 연간 발행계획의 70% 넘게 발행
- 8월 경쟁 발행액은 13조로 1월 이후 가장 적은 액수. 연간 발행 계획을 감안하면 연말로 갈수록 발행액 점차 줄어들텐다
-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원화채 보유 잔고 증가 중이며, 듀레이션 또한 5년에 근접한 수준까지 증가해 데이터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8월 국고채 경쟁 발행 계획: 8월 경쟁 물량 축소



자료: 기재부

외국인 원화채 보유잔고과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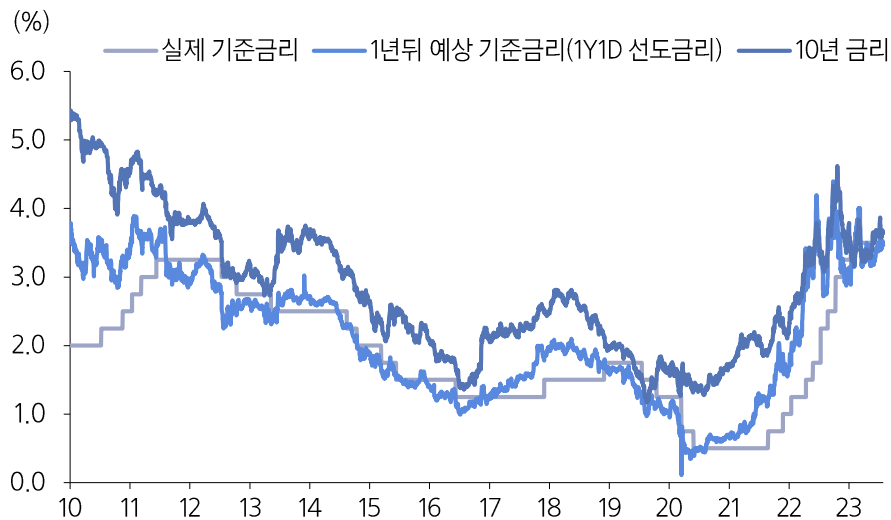
자료: Infomax

기준금리 인하 시점 내년 1분기로 예상

아직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1분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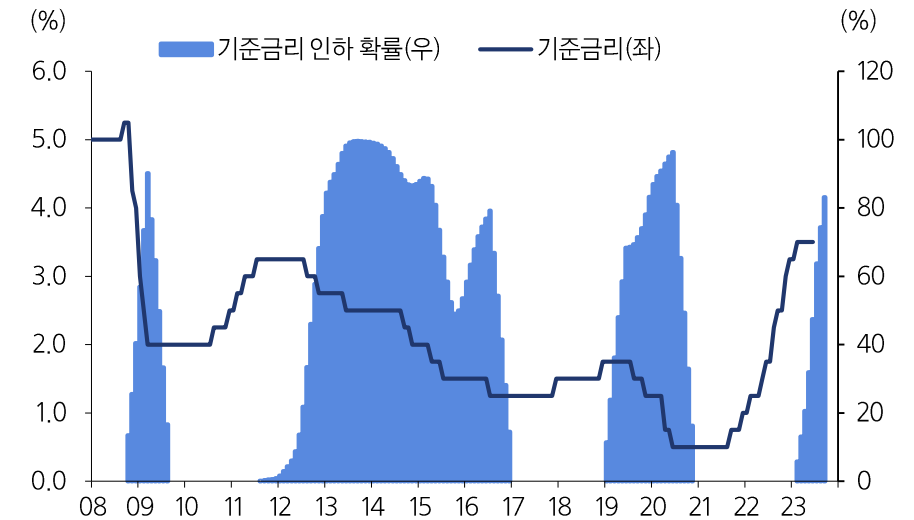
- 최근의 10년 금리 흐름은 선도시장에 내재된 1년뒤 예상 기준금리 흐름과 유사한 궤적
- 현재 선도시장에 내재된 1년뒤 예상 기준금리는 3.5%로 현재 수준에서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듯
- 한편 당사 리서치 센터에서 1)경기심리지수, 2)휘발유소매가격, 3)중국제조업PMI, 4)KOSPI 지수 등의 변수를 사용하여 도출한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올해 9월 83%로 예상. 대외 금리 환경과 정성적인 요소까지 감안하면 내년 1분기 중 인하가 타당하다고 전망됨
- 이를 감안하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1분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말로 갈수록 점차 반영되면서 시장금리 하락 예상

선도금리가 인하 기대를 적시에 반영한 적은 잘 없음



자료: Thomson Reuters

당사 모델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확률은 9월에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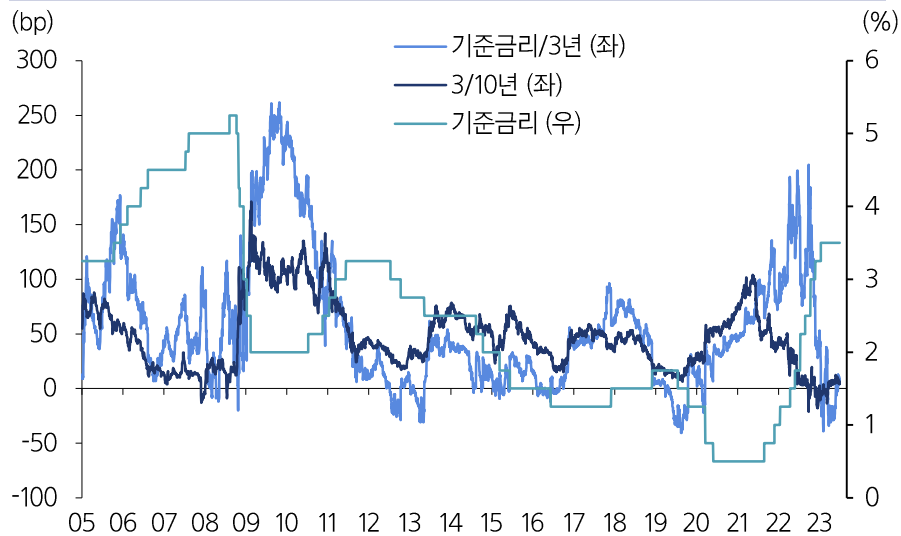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경기 아직 수익률 커브 정상화할 정도로 회복되진 않았음

실물 지표 회복은 아직도 미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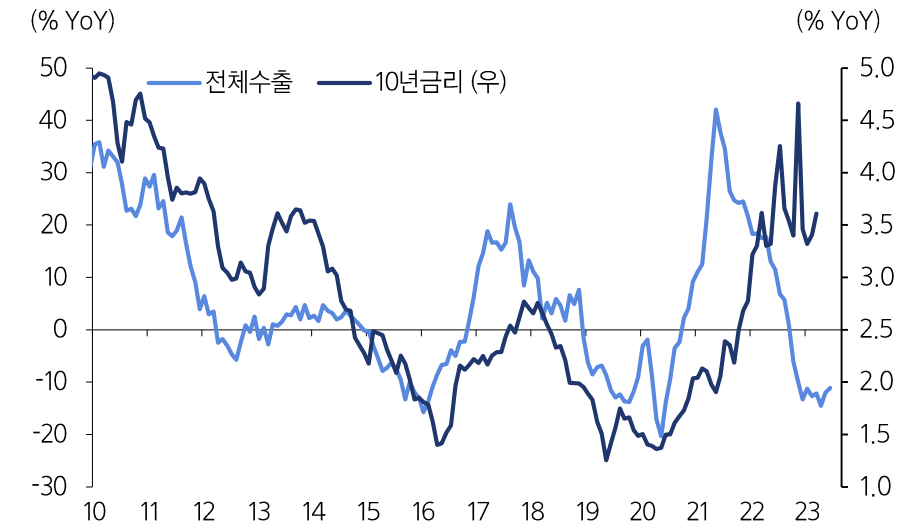
- 한편 경기는 소비심리 지표는 소폭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광공업생산이나 수출 및 소비등 실물지표 반등은 미미함
- 기저효과와 대외 경기를 감안했을때 수출 플러스 반전은 연말로 예상
- 이러한 가운데 여전히 3% 후반인 10년 금리는 펀더멘탈을 감안 시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
- 3분기 금리 상승 시 마다 중장기물 중심 비중 확대 유지

플러스 영역(+) 접어든 기준금리/3년 금리



자료: Thomson Reuters

수출 플러스반전은 4Q. 너무 높은 10년 금리



자료: Thomson Reuters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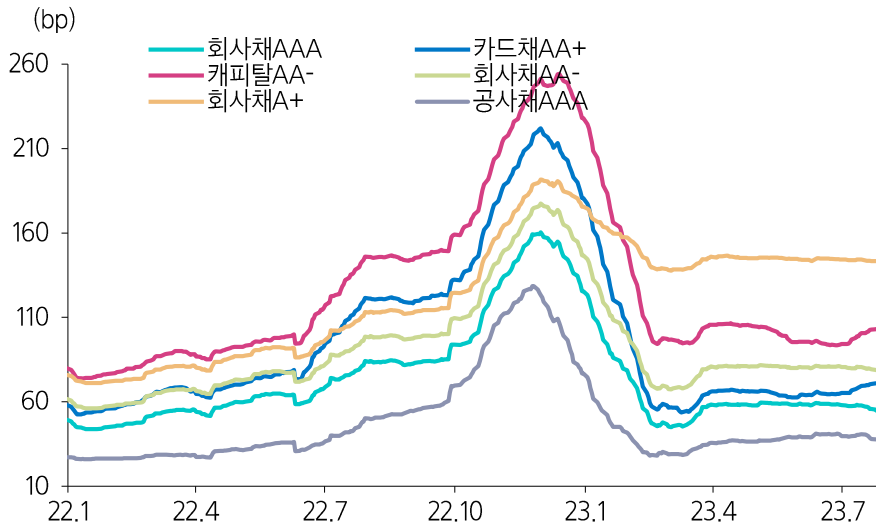
국내 크레딧

국내 크레딧 Neutral 유지

수급 차별화 속 신용 스프레드는 섹터별 혼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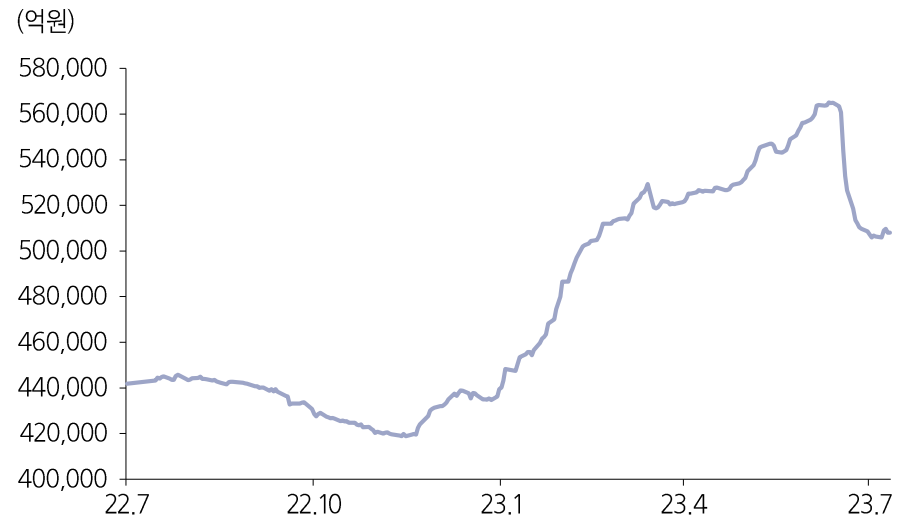
- 정부 신속한 개입으로 새마을 금고발 시장의 우려 완화
- 은행 유동성 공급으로 금고발 매도 압력 감소함에 따라 유통시장도 안정화
- 부동산 관련 PF 리스크에 노출되고 발행 부담 큰 여전채는 상대적으로 취약
- 신용 경계감 지속 불구 탄탄한 캐리 수요는 스프레드 안정성 지지 요인

섹터별 신용스프레드 추이



자료: 인포맥스

종금(금고) 장외 채권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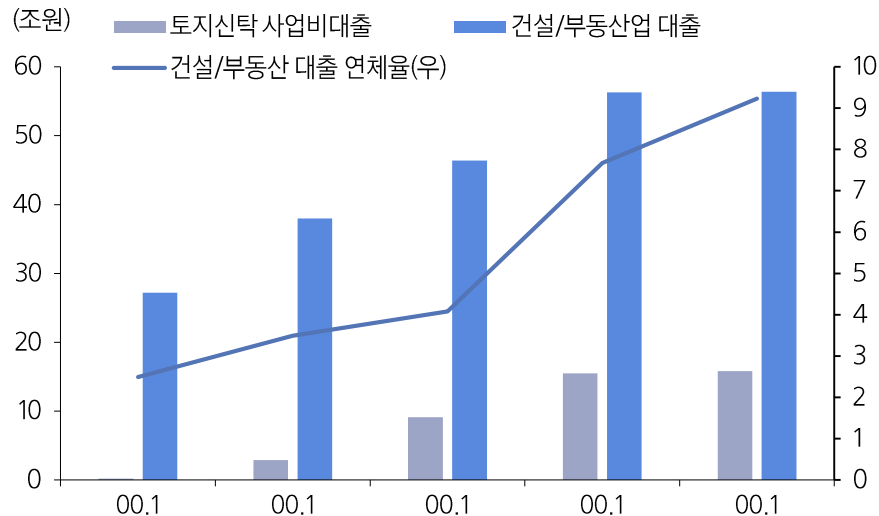
자료: 인포맥스

국내 크레딧 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견된 사고, 일시적 뱅크런 사태 위기 봉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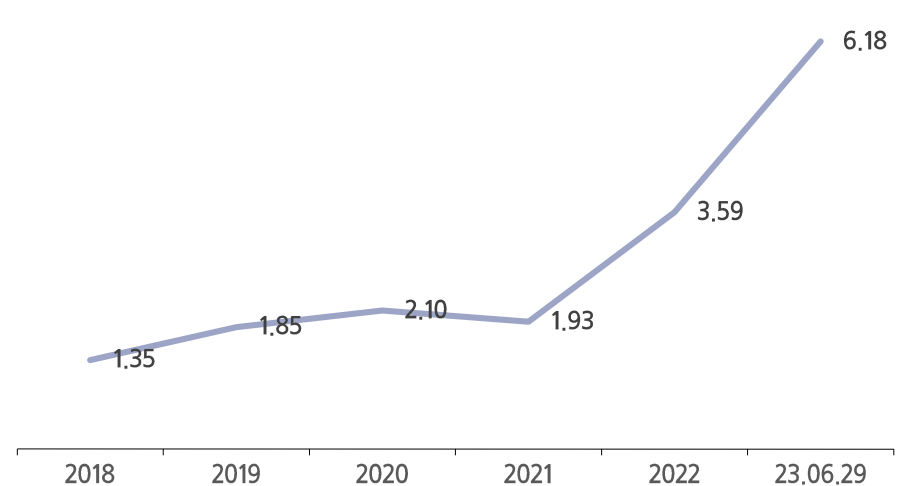
- 정부의 신속한 고객 예금 보호 조치로 뱅크런 사태는 일단락
 - 유동성 문제와 별개로 부동산PF 관련 자산건전성 우려 지속, 금고의 위험 관리 능력 및 의지에 대한 의구심 해소 과제
 - 타 상호금융권보다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순자본비율 등 느슨한 규제와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기관 논쟁도 해결 필요
- ※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기관은 순자본비율 산정 시 순자본에서 출자금을 제외
- 정부당국 부실 금고 조사 결과에 따른 불안심리 잠재, 예금 이탈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속도와 규모가 관건

새마을금고 부동산 대출 현황



자료: 행안부, 한신평 등

새마을금고 연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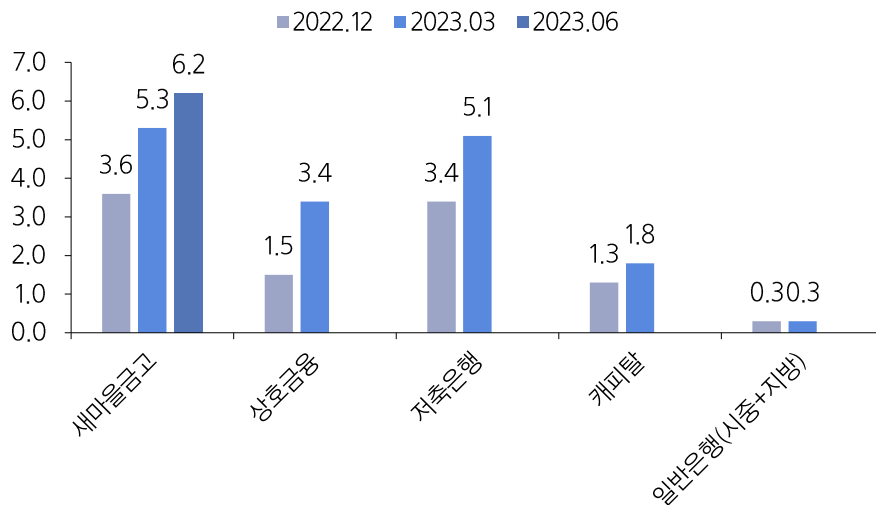
자료: 행안부

국내 크레딧 새마을금고 파급 효과, 머니무브 주목

업권별 기업별 레버리지, 유동성 및 위험 관리 수준이 취약성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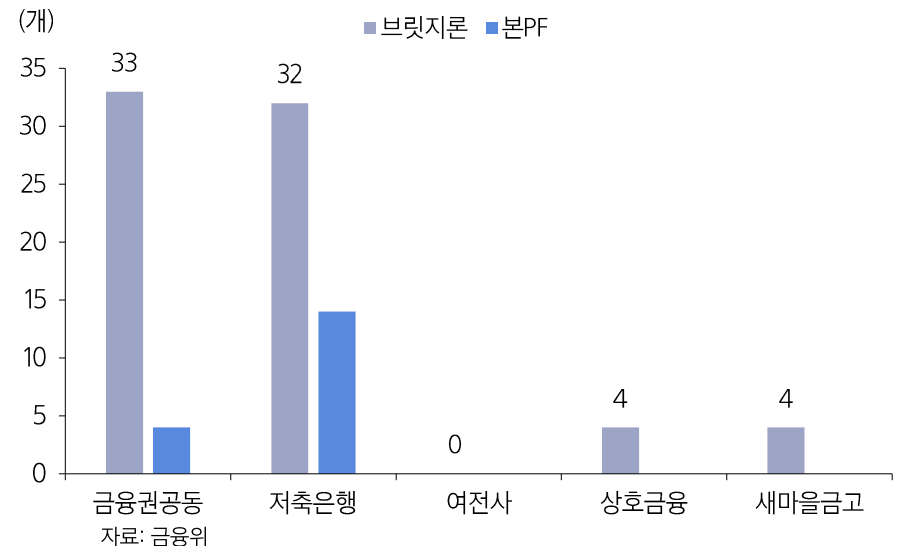
- 정책 대응으로 시스템 위험 억제된 상황, 불확실한 거시적 환경에서 여전히 신뢰에 민감
- 머니 무브 현상에 따른 업권별 기업별 유동성 쏠림과 양극화, 수신 금리 경쟁으로 전반적 시장 금리 상승 유발 가능성
- 시장성 차입 높은 기업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 가능성 잠재, 수익성과 유동성 문제 딜레마
- 주요 부동산 PF 투자자인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및 유동성 관리 방향에 따라 국내 부동산 PF 시장 직간접적 영향(하나증권 2분기 적자전환)
- 구조조정 차원에서 금융기관 매각 또는 통합 사례 증가 예상

업권별 연체율 추이



자료: 금감원, 한신평

PF대주단 협약 사업장 현황(23.06), 상호금융, 금고 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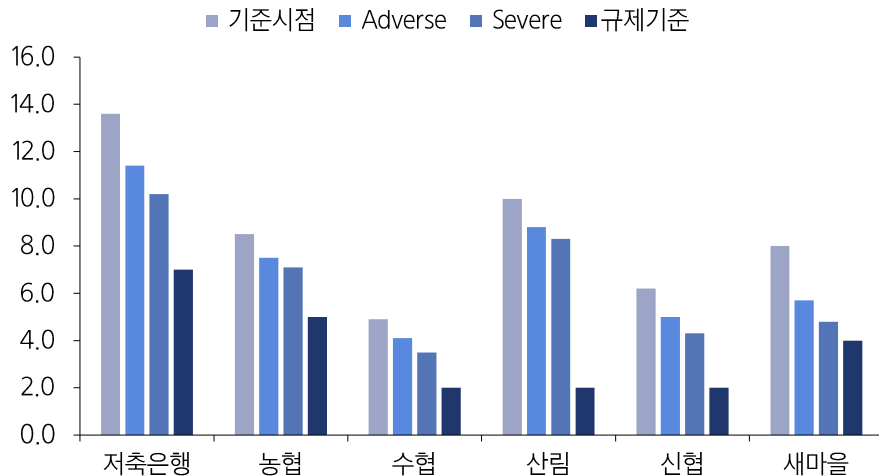


국내 크레딧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잠재 리스크 점검

자본적정성 양호하나 지표 신뢰성 및 유동성 문제 잠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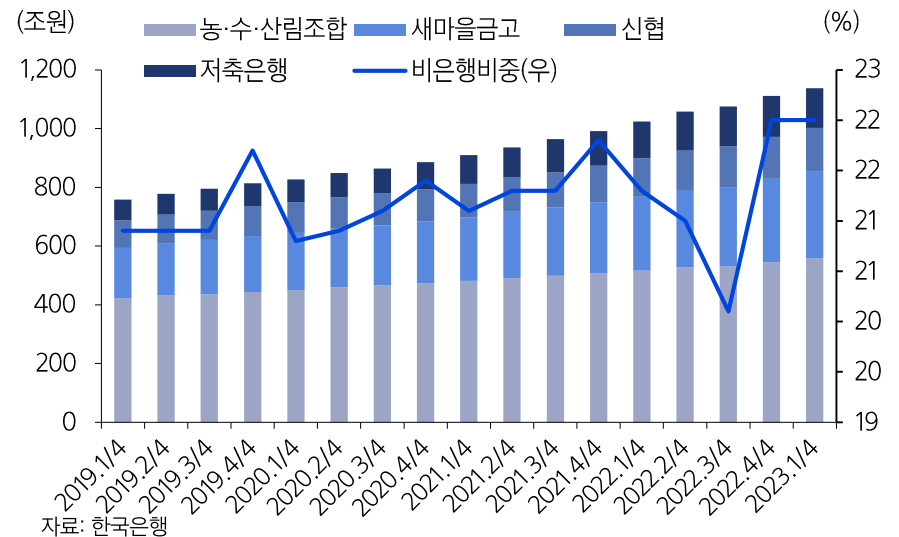
-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부정적 시나리오하에서도 모든 비은행업권에서 자본적정성이 규제기준을 상회하는 양호한 결과
*새마을금고 Severe 시나리오 추정 자기자본비율 4.8% > 규제비율 4%
- 연체 채권 감축을 위해서는 안정적 예대율 관리가 전제 조건
- 상반기 SVB 사태에서 보듯이 뱅크런 등 유동성 위기에 대한 신용위험 테스트 한계
- 은행 및 한은의 RP 지원 정책으로 유동성 확보 과정에서 보유 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채권 시장 안정성 훼손 위험은 감소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시나리오별 자기자본비율 변동



자료: 한국은행, 2023년 1분기말 규제기준: 저축은행 7%(자산 1조원 이상 8%), 농협 5%, 수협·산림조합·신협 2%, 새마을금고 4%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자산 증가세와 도덕적 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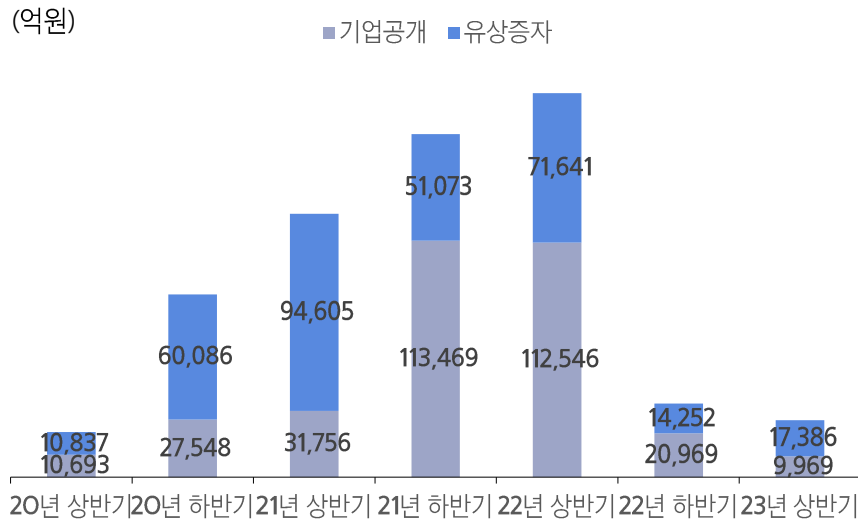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국내 크레딧 기업의 직접금융 자금 조달 여건

상반기 기업 회사채 발행은 증가(+26.7%) 주식은 감소(-85.1%), 재무안정성에는 부정적 영향

- 실적 악화 및 사업 재편 목적에 따른 기업의 외부 자금 수요 증가
- 시장금리 하락과 정부 정책 지원 등 발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기업은 회사채 발행 선호
- 주주 친화 경영 및 유상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CJ, SK 사례) 등으로 주식 발행 수요는 감소
- 주식 대안으로 회사채 의존도 심화됨에 따라 재무안정성 악화되고 중장기적으로 차환발행 부담 누적
=> 비업무용 자산 및 비주력 사업부 매각 등 다양한 구조조정 병행 노력 필요

반기별 주식 발행 추이



증권(주식, 회사채) 공모를 통한 자금 조달실적(억원)

구 분	2022년	2022년	2023년	전년동기대비 증감액(증감률)	
		1~6월	1~6월		
발행총액	2,045,747	1,145,339	1,245,370	100,031	(+8.7)
주식	219,408	184,187	27,354	△156,833	(△85.1)
기업공개	133,515	112,546	9,969	△102,577	(△91.1)
유상증자	85,893	71,641	17,386	△54,255	(△75.7)
회사채	1,826,339	961,152	1,218,016	256,864	(+26.7)
회사채	303,730	215,725	325,034	109,309	(+50.7)
금융채	1,380,328	677,758	817,255	139,497	(+20.6)
A B S	142,281	67,669	75,727	8,058	(+11.9)

자료: 금감원, 신주모집을 통한 자금 조달실적이며 구주매출·출자전환·현물출자·DR 등은 제외

자료: 금감원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는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참고용으로만 제시된 것이므로, 시장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별도의 고지 절차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관련법령에 허용된 범위내에서 투자전략 및 투자프로세스를 결정하므로, 본 자료에 기재된 사항 중 관련법령 및 계약서의 내용과 상이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자료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나 본 자료의 내용이 향후 결과에 대한 보증이 될 수 없으며, 본 자료를 본래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삼성자산운용 이외의 자로부터 입수하였을 경우, 자료 무단 제공 및 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공자 및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귀속되며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주식회사

066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대표전화 : 02-3774-7600 콜센터 : 080-377-4777 [상담시간안내 :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